

목록

2007_여름_1	1
2007_여름_2	2
2007_여름_3	3
2007_여름_4	4
2007_여름_5	5
2007_여름_6	6
2007_여름_7	7
2007_여름_8	8
2007_여름_9	9
2007_여름_10	10
2007_여름_11	11
2007_여름_12	12
2007_여름_13	13
2007_여름_14	14
2007_여름_15	15

그림비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소식지

취업간담회

지청신과의 만남

대의원 인터뷰

김양수 교수님 인터뷰

알콩달콩 지식정보

우리과 소모임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지청신

도서관법 개정 소식



차례

취업 간담회	01
지정인과의 만남	
내의원 인터뷰	02
김양우 교수님 인터뷰	05
알콩달콩 지식정보	
우리 과 소모임	08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지정인	10
도서관 법	12
영화, 책을 말하다	
영화를 말하다	13
책을 말하다	14
칼럼	16
한 학기를 마치고	18
맛 집탐방	20
스도쿠	22
편집후기	23

■ 취업간담회

07년도 지식정보학부 취업간담회



2007년도 상반기 지식정보학부 취업 간담회가 5월 23일 오후 5시에 DLC에서 열렸다. 취업간담회는 취업을 한 우리 과 선배님들이 오셔서 후배들에게 취업에 관한 좋은 정보를 주는 자리이다. 이번 자리에서는 강순애 교수님의 사회로 약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취업 간담회는 '전공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조인숙 교수님의 발표를 첫 번째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으로 김성민 선배님의 '기록 관리 분야 취업의 이해', 최근 사서교사가 된 신 손서영 선배님의 '사서교사 임용고시'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조인숙 교수님의 발표에서는 '전공과 직업'이라는 테마로 진행 되었는데, 일단 진로의 선택을 위해서 자신의 성격과 관심분야를 분석해 기초실력을 연마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가꾸어 가야 한다고 한다. 더불어서 성공한 직장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사들은 어떤 부하들을 싫어하는지 등 직장에서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간단하고 재밌게 설명을 덧붙이셨다. 또한 10년뒤 유망 직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과에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들도 소개 되어서 좋은 정보가 된 듯 싶다. 유망직업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 실버시터,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등이 있다. 요즘 같은 네트워크 시대에서의 NQ를 소개해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것들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계시는 관장님들에게 자문을 하셔서 도서관 현장에서 원하는 사서채용 기준을 제시해 실용적인 정보를 주셨다. 도서관 현장에선 물론 그 분야의 전문적이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도 원하지만 더불어서 조직에서 화합할 수 있고 인간성이 좋은 사람, 서비스 정신도 투철한 사람들을 원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서직 채용계획을 전망 하는 정보를 주셨다. 대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의 채용인원과 채용조건등이 제시 되었다.

다음으로 기록관리분야 취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가기록원에 계시는 김성민 선배님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관리 전문요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간략한 설명과 기록물 관리기관의 현황을 보여주셨고 전문요원 배치시기와 필요인력을 제시해 언제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해야하는지, 지금 기록물 관리기관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었다. 국가기록원에서의 채용방식과 선배님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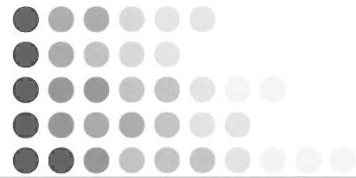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최근에 사서교사가 되셔서 서울여자고등학교의 사서교사로 계시는 손서영 선배님의 발표가 이어졌다.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었다. 사서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자격과 채용인원, 2007년도에 시험시간과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는지 알 수 있었다. 사서교사가 되는 것은 말 만큼 쉽지 않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 하다고 하셨는데, 정보수집에 유리하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스터디를 참여하는 것인데, 웬만한 학원 강의보다 괜찮다고 한다. 또, 사서교사를 준비할 때 각 과목마다 괜찮은 수험서를 제시했다. 자신의 임용고시 준비를 시간표로 보여주시고 시험을 위한 조언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생생한 노하우를 알려주셨다.

선배님들의 발표가 끝나고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Q&A시간에도 많은 정보를 학우들이 가져갔을 것이다. 현장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함께 한 2007년 취업간담회 자리에서는 후배들이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과 선배로서 후배들이 알찬 미래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기사: 편집부부장 06 김유리

<자정인과의 만남>

대의원 인터뷰



이제 시간이 흘러 한 학기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우들을 위해 고생한 대의원 분들, 그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학교생활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 행사와 학교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 대의원분들은 어떻게 한 학기를 정리 하고 있을까요? 저희 편집부가 특별히 대의원분들을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많았던 1학기였죠? 특히 07 김수지, 조용훈 학우는 처음 접해보는 과대활동이 쉽지 않은 않았을텐데요. 이 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과대를 맡으셨는데 특별히 과대가 된 이유가 있다면요?

용훈: 전 수시합격생이라 정모와 모임자리에 나갈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선배들이 너무 좋아서 과대를 하게 되면 선배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07아이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요.

수지: 고등학교 보다 넓은 곳에 왔으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싶었어요.

또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을 배우고 싶었어요.

* 과대가 되어서 힘들었던 일이나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나요?

용훈: 과에 행사나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모으고 참여하게 이끌어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 행사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주위에서 선배들과 동기들이 힘들 텐데 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지: 아이들의 참여율이 저조 할 때, 그 부분이 과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람 있었던 적은 아이들이 수고했다고 말해줄때!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과대 일을 보람되게 만들어줘요!

* 실제로 과대가 되어 활동을 해보니 생각했던 과대랑은 어떤 점이 가장 다르던가요?

용훈: 고등학교 동아리 때 비슷한 일을 해봐서 대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의원 활동은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규모가 더 크더군요

수지: 총학생회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잦은 대의원회의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 과대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과대에게는 어떤 성격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용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또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지요?

수지: 많은 아이들이 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대였으면 좋겠어요.

* 과대를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다면요?

용훈: 대동제 때 새내기 주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07이 다른 선배들과 학우들을 상대하는 첫 행사이기 때문에 부담도 크고 첫날에 적자가 커서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흑자가 되서 멋진 행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수지: 역시 새내기들이 준비했던 축제겠죠! 사실 저희가 한 부분보다 06선배님들과 학생회 선배님들의 도움이 컸어요.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었어요. 비와 바람 등으로, 3일 동안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처음해보는 주점운영이 재미도 있었어요.

* 마지막으로 과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용훈: 한 학기 행사를 별 탈 없이 성공리에 마치게 해준 것이 고맙고 2학기 과대를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계속 좋은 단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수지: 부족한 제가 한 학기동안 과대로서 행사를 이끌 수 있게 도와준 여러분들 감사해요. 저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께 어떻게 비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지식정보학부 여러분~! 우리 과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해서, 우리 과를 멋지게 이끌어가 봐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 07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07학번 새내기들을 가장 가까이서 이끌어준 06학번 선배

특히 과대를 맡아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시는 06 최다환, 06 최미영 학우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 과대를 맡게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06 최다환: 1학년 때 과대를 하면서 인맥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학년 과대를 맡아 06학번 학우들을 위해서 먼저 술선수범해서 나서고 싶었습니다

06 최미영: 원래 과대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경이를 과대로 추천을 하다가 어이없게 미경이와 혜원이에게 추천을 당해서(?) 과대를 하게 되었습니다.(웃음)

* 과대를 맡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06 최다환: 과대로서 각종 행사에 사람들을 끌어야 하는데 참여율이 높지 않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저와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MT를 즐겁게 다녀왔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06 최미영: 힘들었던 일은 별로 없었고 아이들에게 뭔가 해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못해서 약간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06 최다환: 작년 대동제 때가 아닐까요? 그때는 우리가 새내기였기 때문에 직접 주점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06들도 무척 고생이 많았는데 힘이 들어서 그런지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06 최미영: 대동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새내기 때 우리가 했던 대동제를 07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07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았습니다.

학업에 힘쓰기도 모자란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과를 위해 봉사하시는 3,4학년 과대님들의 이야기 역시 빼놓을수 없겠죠?

3학년과대 03 백남욱, 4학년과대 02강영오, 04최은영 학우께서 질문에 응해주셨습니다.

*과대를 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03 백남욱: 1학년 때도 과대를 맡은 경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심부름을 많이 시키셔서 이왕 이런 거 아예 맡아서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서 과대를 지원하게 됐지요

02 강영오: 과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학우들에게 봉사할 마음도 있고 대학생활 마지막에 이런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역할을 맡아서 한번쯤 일해보는 것도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4 최은영: 선배들의 추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과대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과대를 하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지는 않았나요?

03 백남욱: 1학년 과대 때는 선후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데다가 아이들이 말을 별로 듣지 않아 무척 힘이 들었어요. 그 때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운 적도 있었죠. 이번 해에는 대의원 회의가 많아서 수업을 잘 들어가지 못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04 최은영: 올해는 여러 대책 회의가 많아져서 회의를 다 참여하다보니 힘들었습니다.

*** 과대를 하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나요?**

03 백남욱: 1학년 과대를 맡았을 때 과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위에서 그래도 남욱이가 과대를 맡아서 다행이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 과대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02 강영오: 인대체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런 행사는 1,2학년이 중심이 되어 진행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엔 3,4학년의 참여도가 의외로 높아서 과 학우들의 단합과 친밀도를 더욱 높이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나는 축구대표로도 뛰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생전처음으로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까지 났었지요. 열심히 뛰었는데 준우승을 해서 아쉽긴 했지만요.

*** 과대가 되니 본인이 생각했던 과대와 어떤 점이 달랐나요?**

04 최은영: 대의원으로서 4학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 1학년 과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02 강영오: 1학년 수업 한 개 듣는데 많이 산만 한 것 같습니다.

수업 때 면학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과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 합니다

교수님께서 앞에서 강의하시는데 잡담 때문에 수업의 흐름이 끊기면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또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안하도록 과대가 힘쓰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식정보학부의 1,2,3,4 학년 과대를 만나보았습니다. 새롭게 학교에 들어와 처음으로 큰 행사를 직접 참여해 새내기들을 이끌어 준 1학년 과대들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 학년을 아우를 수 있게 해 준 재학생 과대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1학기를 잘 이끌어준 각 학년의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한 마디를 건넵시다. 우리의 고맙다, 힘내라 라는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장인과의 만남>

김양우 교수님의 유쾌한 만남



지식정보학부에 작년에 부임하셔서 지정인과 1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 계신 김양우 교수님을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지식정보학부의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학생들과의 끈끈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계신 김양우 교수님과의 유쾌하고 신나는 인터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Q: 처음엔 가벼운 주제로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자녀는 몇?

A: 이거 안 가벼운데……. 예. 했고 아들 하나있습니다.

Q: 기억에 남은 학생이 있으신지요? 07 학번 중에.

A: 예, 많은 학생들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굳이 뽑아보자면 수업 중 맨 앞줄에서 졸다가 바로 직전에 설명한 것 질문한 학생, 그리고 연합 MT가서 열심히 하던 모습들, 또 축제 기간 중 주막 주방에서 끊임없이 대기하면서 수고하던 모습들 등이 떠오르는 군요.

Q: 주말에는 뭐 하시나요?

A: 사실 주말과 주중의 생활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주중에 하던 같은 일을 주로 집에서 한다는 것이 다를 뿐.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National Geographic Channel (NGC), History Channel, Discovery Channel 등을 즐겨보지요. TV는 금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지요. 특히 위에서 말한 채널들은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edutainment.

Q: 말씀하신 TV 채널의 프로그램 중 특히 즐겨보시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왜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A: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들면 NGC의 동물관련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본능'이란 무엇인가? '이성'이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본능'이고 어디까지가 '이성'인가? 이 두 가지는 대립되는 개념인가? 우리가 '이성'이 없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동물은 '이성'이 없는가? 물론 우리 인간이 정의내린 그러한 의미의 '이성'은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디까지가 '본능'이고 어디까지가 '이성'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두 살짜리 아이, 지능이 미숙한 성인, 일반성인, 어린 동물, 다 자란 동물, 이러한 대상별로 '본능'과 '이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여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내리게 되는 결론은 동물을 쉽게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 오늘부터 햄버거도 안 먹고, 삼겹살도 안 먹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덜 고통 받으며 죽을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초원에서 살아있는 들소를 뜯어먹는 사자와는 좀, 아니 많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Q: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죠.

A: 현대의 동물들과(NGC) 과거의 인간들을(History Channel) 보면서 현실로부터의 멀어짐을 즐기게 되는데 그 즐거움이 주말 내내 계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Wife의 독설도 들어야하고요. 우리 아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해 보지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얼굴이 이렇게 커”하면 wife 왈 “그거 이제 알았어.” 뭐 이런 겁니다. 한번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매트리스 밑의 나무받침대가 빠지면서 매트리스가 밑으로 주저앉았지요. 이런 일은 전에 미국에서도 가끔 있었어요. 사실 내가 그리 작은 몸집은 아니지요. 이럴 때 wife가 하는 말은 “침대를 움직이지 말고 세계를 움직여라”입니다. 우리 아이의 어록에 더 재미있는 것이 많았는데 갑자기 생각하자니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Q: 어릴 적의 꿈은?

A: 카피라이터, 극작가 등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Q: 교수님 전공 뭐하셨어요?

A: 우리학교에 오기 전에 주로 공부한 내용은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 정보탐색(Information Search)에 관련 된 것이지요. 지금 맡고 있는 과목들의 영역별로 전공수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디지털환경에서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전망은?

Alvin Tofler 가 었그제 (편집자 註 인터뷰 날짜: 6월5일) 서울에 와서 말하기를 “미래는 예측(predict)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imagine)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Tofler의 이러한 사고 혹은 접근 방식, 즉 ‘레토릭’(rhetoric), 또는 ‘용어선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우리 편집위원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강의시간에서도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했었지요. 그런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또 인용하게도 되니 Tofler의 얘기가 아주 쓸모없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학자는 미래를 예측하여야 하겠지요. 상상은 작가의 영역으로 봅니다. 물론 주로 인문학 등에서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그런데 예측(prediction)에도 어느 정도의 상상력(imagination)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학자가 점쟁이는 아닐 뿐 아니라 학자의 식견도 제한된 것이니까요.

90년대, 그리고 아마도 그 이전부터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많은 글들이 있었지요. 제가 지금 주로 기억하고 있는 글들은 formal 한 research paper였다기보다는 저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opinion paper였던 것 같습니다. 책 없는 도서관과 더불어 그러한 도서관에서 사서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전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시점에서 보면 우려했던 만큼의 변화는 없었지요.

사실 우리가 ‘도서관의 미래’를 궁금해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서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봅니다. 아무리 technology가 큰 변화를 가져와도 그 것을 운영할 사람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계약을 맺어 시스템을 구입하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설명하여 주고 하는 역할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과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내어 제공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낙관적으로 봅니다. 글썄요, 여러분(지정학부 학생들)의 자녀들도 또 우리 지식정보학부에 입학한다면 그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한세대 정도는 책도 상당부분 그대로 있고 사서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고 predict 하고 imagine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령 사서의 역할이 축소된다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도서관에 배정되는 예산이 늘어날 것이므로, 즉 플러스요소가 마이너스 요소를 상쇄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외부의 인식 변화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서관계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하겠지요. 나중에 라도 혹시 저의 prediction이 틀린 것으로 나타나면 imagination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좀 봐주세요. (웃음).

Q: 지식정보학부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A: 예. 우선 교수로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하였으니 혹은 하게 되었으니 가급적이면 도서관 혹은 도서관 관련 직종으로 방향을 정하고 노력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타 직종에서 일할 경우 4년간 공부한 것이 좀 아깝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학교 교양과목에(다른 대부분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회계학, (교양)재무관리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 들어갈 경우, 많은 경우 이러한 분야들이 아주 중요하고,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공자님 말씀이지만 방향을 정하면 열심히 하는 것.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지난번 취업간담회에서 조인숙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 즉 국회도서관에서 얘기하기를 “굳이 문정과 출신 필요 없다. 타과 출신이 더 낫다.” 뭐 이러한 부분,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어서 첨가합니다. 우리 지정학부 학생들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한 개인으로서 말하자면, 건강관리에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남녀학생 모두 해당되겠지만 흡연은 좋지 않지요. 특히, 혹시 있다면 여학생 흡연……. 일산 암센터 박재갑 前원장이 금연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원장 재직 시 한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성 몸 안의 난자는 태아일 때 갖고 태어난 일정한 수의 난자들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 즉 중간에 추가 생산이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 예를 들어 20세 흡연시작, 23세 담배 끊고, 25세 결혼, 27세 임신, 이렇게 하여도 역시 ‘연기 먹은 난자’가 사랑하는 자식의 몸 일부를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죠. 남학생들도 담배는 백해무익하니 안배우면 제일 좋고 배우더라도 늦게 배워서 일찍 끊으면 좋겠지요.

Q: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A: 편집위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군요. 감사합니다.



취재: 새내기 기자단 07 허기쁨
07 윤예림
기사: 새내기 기자단 07 허기쁨

통기타 소모임 - 지집이



지식정보학부에 소속된 소모임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 학부엔 기타 소모임인 '지집이'와 축구 소모임 총 2가지의 공식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소모임의 소모임장인 분들과 나름대로의 인터뷰를 가져 봤는데요. 먼저 지집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지집이는 이번년도 5월 12일부터 모이기 시작한 아주 따끈따끈한 기타 소모임입니다. 소모임계의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 기타가 지식정보학부 학회실과 실습실 여기저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그 기타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소모임장의 말을 들어보니 지집이는 기타에 관심이 있거나, 기존에 기타를 즐겨 연주하던 지식정보학부 사람들이 모여서 기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연주곡을 정해서 연습하고, 선·후배간의 유대를 갖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임은 매주 토요일마다 우촌관에 위치한 지식정보학부 실습실에서 12시에 만나 2시간 정도 모임을 갖고 있고, 15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집이는 이번 지정인의 밤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연주할지 물어보니, 신비주의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직접 오셔서 보고, 듣고, 깜짝 놀라시길 바란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지집이에 가입을 하려면 지정인 중 남녀노소 누구나 기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인 참여의사만 있으시다면 가입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가입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관심과 열정적 참여의사 외에도 기타가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기타를 전혀 칠 줄 모르더라도, 기타 연주에 필요한 필수적인 간단한 코드 몇 가지를 외우게 하고, 연습곡을 주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식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니 기타를 배우기도 쉽겠조? 또한 회원들 중에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골라서 배울 수도 있으니 모르거나 조금은 어색한 분에게 배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모르는 분들과 친해지는 것이 기타 소모임 나름대로의 목적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기타를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한, 두 가지정도 말해달라고 하니, "기타를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배우는 것은 그리 크게 오래 걸린대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손가락의 아픔을 잘 참아내고 꾸준히 연습을 하다보면, 어느새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간단하게 치며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게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코드를 배우는 것은 한 달도 걸리지 않고, 연주하는 것도 쉽습니다. 또,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는 역시 지집이에 들어와 선·후배간의 유대도 돈독히 하고 즐겁게 배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라며 지집이의 회원모집에 열을 올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체육 소모임 - 축구부



축구 소모임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할까요? 축구 소모임의 소모임장이신 06학번 김태우 학우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축구 소모임인 만큼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격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주에 1번, 토요일 12시나 2시에 진리관에 위치한 지식정보학부 학회실에서 모입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에는 모임을 갖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번 모여서 축구를 하게 되면 4~5시간 정도 학교 운동장에서 한다고 하니 축구 소모임에 가입하면 엄청난 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축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나면 힘도 들고, 배도 고플 텐데, 밥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물어보니 선배님들이 저녁을 사주신다고 하고, 또 축구가 끝난 후에, 한 달에 한 번은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축구 소모임에서는 12~13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축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같이 축구도 하고 선·후배간의 친목도 다졌으면 좋겠네요. 이 소모임에 가입을 하려면, 축구를 잘 하는 사람이건, 못 하는 사람이건, 좋아하는 사람이건 구분 없이 아무나 축구 소모임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축구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소모임장이신 06김태우 학우에게 말씀을 하시거나, 축구 소모임 회원 아무에게나 가입의사를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축구 소모임에 받을 들어 놓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축구 소모임에도 한 가지 궁금증! 축구 소모임이면 유니폼을 맞춰서 축구를 할 텐데, 어떤 유니폼인지,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축구 소모임의 유니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 팀 아스날의 원정 유니폼입니다. 4~5개 정도의 유니폼들을 우선 정해두고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유니폼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축구 소모임은 축구를 좋아하고,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에 관심이 있는 지식정보학부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식정보학부에 있는 공식적인 소모임 2가지, 지집이와 축구 소모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모임인 만큼 회원수는 많지 않지만, 언젠가는 지식정보학부를 대표할 수 있는 소모임이 될지도 모르는 지집이와 축구 소모임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아시게 되셨나요?

혹시라도 저 2가지 소모임 중 활동하고 싶은 소모임이 있는데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시구요,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셨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지식정보인



취미 [趣味][명사] 1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2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

3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멋.

이번에 지식정보학부에서 취미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 취재를 해봤습니다. 여러 멋진 취미를 가지신 분이 많으셨는데요. 범상치 않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노마진이 아닌 서창호로 기억되고픈 남자 서창호, 프라모델을 만듭니다.

일단 창호군은 주로 밀리터리를 축소한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창호군은 프라모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프라모델이라는 것은 실제 모델의 축소판으로써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축소판으로 만들고 도색하는 것과 실제 모델에서의 페인트가 까진 표현, 녹이 슬거나 흠이 묻은 표현까지 표현할 수 있고, 또 원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버전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모델이라는 것이 조립한 한다고 완성 되는 게 아니고요. 프라모델을 자신의 취향이나 시대에 맞게 도색이나 튜닝 하는 게 중요한데, 도색을 할 때 필요한 도료들의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집안에서 도색을 했다간 부모님의 구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색을 할 때마다 몰래몰래,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찬바람이 불던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작업했던 기억이 나네요.(웃음)”

앞으로의 계획 보다는 목표가 있다고 하네요?

창호군은 도전해보고 싶은 프라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전차모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타이거 탱크와 2차 대전 공중전의 주역이었던 일본의 비행기 제로파이터, 프라모델 분야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프라모델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폭스바겐의 뉴비틀을 꼭 만들어 보고 싶고, 더불어서 이 취미를 동기들과 선배들이 함께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렸을 적 프라모델을 조립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건담이나 작은 로봇 장난감들을 말이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도색이나 튜닝을 해 프라모델에게 영혼을 집어넣어주는 섬세한 작업을 하는 서창호군이 달라보입니다. 이렇듯 별거 아니게 보이는 프라모델도 장인의 정신이 필요할 만큼 섬세하고 세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옛 추억을 되살리며 프라모델 한 상자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타로점의 일인자 이 솔!

이번에는 지정의 점술가 솔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솔이가 타로카드로 점을 봐준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비밀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왜 솔이는 타로점을 취미로 가지게 된 걸까요? 솔이는 평소 희안한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타로카드라는 것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이지요. 또한 솔이는 카드를 볼 때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었는데



“어떤 일들의 대한 정확한 날짜를 집어달라는 것은 불가능 해요. 하지만 어떤 날짜를 선택해 그 날짜에 대한 점을 봐줄 수 있어요. 그리고 타로카드로 점을 볼 때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위가 산만하거나 시끄럽다면 점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카드에 적힌 뜻은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되므로 선불리 단어 뜻으로 판단하면 안 되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손님과의 교감이 잘 맞는다면 카드 점의 정확도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본 기자는 솔이에게 타로점을 본적이 있으며 지식정보학부의 대다수의 학우들도 솔이에게서 타로 점을 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궁궁증을 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타로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솔이의 타로점을 말입니다. 자신의 고민이나 궁궁증을 솔이 점술가에게 털어 놓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렇다면 명쾌한 해설과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물론 밥 한 끼 사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점괘가 잘 맞을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선 졸작도 작품이 된다! 김정은 학우



이번에는 지식정보 학부의 귀염둥이(?)이신 김정은 학우의 사진 찍기에 대한 취미를 취재해 보았습니다. 일단 김정은 학우의 사진 찍기의 동기는 매우 단순한데, 그 이유가 무엇 이냐면 “그냥 집 안에서 카메라가 뒹굴 거리고 있길래 찍기 시작하였다.” 라고 합니다.

선배의 카메라는 기종이 Pentax로 20년 이상이 된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카메라 이다 보니 플래시가 안 터진다는 점. 어두운 곳이나 밤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거죠. 정은 선배가 사진을 찍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마도 추억이 남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무겁다고 하니 들고 다닐 때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정은 선배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 하셨다는데 지금까지 찍은 사진에서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꽃집 앞에서 찍은 장미 사진이라고 한다. 정은 선배의 사진 찍기에 대한 로망은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한 장면 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추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로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이라는 것을 찍는것입니다. 오죽하면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까? 대학 4년 그리 긴 시간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우리 모두 집에서 굴러다니는 사진기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겨 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지식정보의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을 취재해 봤는데요. 누구나에게 취미는 하나씩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 시간 때우기도 좋을뿐더러 취미를 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독특한 자신만의 즐거운 취미를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취재 & 기사 : 새내기 기자단 07 박동준

2007 HOT ISSUE 도서관 법 전면 개정!!

희망의 무지개, 「도서관법」 개정된다.

2007.3.27 대통령령 제 19963호.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지식정보인이란 누구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도서관계의 새로운 바람 「도서관법」 개정. 보통의 법의 개정이라하면 일부의 내용만이 수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틀을 깨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합쳐져 있던 두 개의 법이 「도서관법」이라는 단일 명칭과 내용으로 전부 개정 되었다. 이는 '독서진흥법'이라는 법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개념들이 포함시켜져 있었기 때문에 법률 명칭이 분법화 된 것이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부터 발을 내딛는 「도서관법」.

개정된 「도서관법」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3조에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는 항목이 새롭게 재정되었다. 이는 이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장 공공도서관-제24조에서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고 법이 개정되자 일반인 도서관 관장들이 사직을 면하기 위하여 도서관명을 정보관·자료실·정보센터·문화센터·자료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바꾸어 간판을 내 걸기 시작하여 도서관계의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번 「도서관법」에서는 실제로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장관의 판단 하에, 도서관으로 적합한 시설이면 이름에 관계없이 도서관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도서관법 개정 시 도서관계에서 가장 심열을 기울인 부분이며 전반적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수록.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제’에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생겼다는 점, 특히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두어졌다는 점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뿐이라는 정책에 도서관계의 큰 힘이 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 공공도서관. 도서관 종류에 있어서도 기존의 특수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편입시켰으며, 단독항목을 차지하고 있던 문고 또한 공공도서관의 하위개념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독서지도사에 대한 논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사회가 발 빠르게 발전해 나가듯 지식정보의 격차 또한 빠르게 커져간다. 그리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내용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라는 내용을 추가. 그것이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라는 항목이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체계화 하였으며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누구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도서관법」 개정으로 도서관계에는 희망의 무지개가 떴다.

문헌정보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도서관계와 우리 학문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자!

영화 속으로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를 본 뒤..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ただ、君を愛してる: Heavenly Forest, 2006)

네티즌 평점 ★★★★★ 9.14/10

나의 평점 ★★★★★ 7.8/10



ただ、君を愛してる

20살에 만난, 무채색의 순수하고 예쁜 사랑.

나는 이 영화를 보고난 뒤 어떤 문장을 쓰면 가장 영화와 가깝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다. 결국 내 머릿속에서 나온 표현은 맨 처음의 문장이다. 사실 난 영화를 편식하듯이 보는 편이다. 보통 액션이나 판타지, 영웅물, 전투물 등만을 보는 편인데 내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것은 어떠한 우연일까? 좀 우습지만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문법에 맞지도 않는 제목이 특이해서’이다. 또 포스터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떠한 끌림도 한몫을 했다. 이 영화의 장르를 뭐라고 딱 꼬집어서는 말하지 못하겠다. 멜로 정도가 적합할까? 난 이 영화에 세 가지 요소가 작동한다고 느꼈다. 몽환적인 숲의 아름다운 녹색의 빛, 시즈루의 독특한 정신세계와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연, 마지막에 기대했던 결말과는 다른 반전. 영화는 그렇게 구성된다. 116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크린에서 눈을 땔 수 없었던 것은 영화의 소재들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주인공인 시즈루와 마코토. 둘만의 비밀장소는 캠퍼스 뒤편의 조그마한 숲이다. 영화를 보게 된다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그 숲속에 내가 들어간 듯 영화 속 풀내음이 가슴한구석까지 차오른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진을 찍는다. 새, 나무, 강, 자연을..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사랑을 카메라로 찍어낸 것이 아닐까? 대박을 바라는 자극적인 영화들과는 달리 이 영화에서는 격렬한 키스신도 없고 베드신도 없다. 보는이의 눈을 훈훈하게 해주는 너무도 순수한 주인공들의 사랑만이 존재한다. 영화를 보는 1시간 20분정도 동안은 마코토는 자신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깨닫지 못한다. 시즈루를 단지 친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보는 이에게 안타까움을 유발한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묘미인 듯 싶다. 아쉬움이라는 것. 말없이 훌쩍 뉴욕으로 떠나버린 시즈루를 기약없이 기다리고 나서야 사랑을 깨닫는다. 시즈루가 떠난 지 2년째 되는 날. 뉴욕으로부터 시즈루에게 초대장이 온다. 그때의 마코토의 심정은 보는 이도 들뜨게 한다. 그렇다. 이 영화는 화려하고 색채가 강렬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차분함, 설렘, 기다림, 아쉬움, 애뜻함. 이 감정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가 참 조용한 영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반전이 조금 억지로 끼워맞춘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격변하는 시대에 지치고 피로하다면, 나는 잠시 기대서 쉬어갈 수 있는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아내가 결혼했다'



이 책은 제목 '아내가 결혼했다.' 제목 그대로 '나'의 아내가 또 다른 남자와 결혼생활을 하는 내용이다. 이혼율이 30%를 넘어선 요즘 같은 시대에 '두 번의 결혼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책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 한번의 결혼과 한 번의 재혼이 아니라 두 명의 남자와 동시에 결혼생활을 한다는 지금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이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인 '인아'는 유럽축구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조금은 독특한 가치관을 가진 여자이다.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일반적인 상식에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서로만을 바라보고 한 사람에게 충실하며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인아에게 연애란 둥근 축구공처럼 한가지로 규정되지 못한다. 인아 에겐 모든 것이 축구공처럼 둥글다. 둥글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말이다. 가령 갑자기 아무 소식 없이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해해 달라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상황 덕분에 덕훈은 인아에게 이별통보도 해보지만 결국 인아를 잊지 못하고 위험한 연애 줄타기를 시작한다. 인아를 잡아두는 방법은 결혼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덕훈은 인아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서로를 구속하지 말자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결혼을 승낙한다. 덕분에 덕훈은 결혼생활 도중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아내의 당돌한 말을 듣게 된다. 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수봉이 옳았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배가 들 수 있는 항구의 수보다,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의 항구에 오고 가는 배들의 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자는 항구처럼 움직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남자가 배라면 여자는 항구라기보다는 이동식 독(Dock)이라거나 항공모함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인아를 적절히 표현한 문장인가.

덕훈은 인아에게 이혼을 해준다고 말했지만 황당하게도 인아는 당신 역시 사랑하므로 당신과의 결혼 생활은 유지한 채 또 다른 남자와의 결혼생활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한다. 단순한 동거도 아닌 완전한 결혼을 인정해 달라니 그것도 현재의 남편에게? 그러나 더 어이없는 상황은 남편 덕훈은 혼란과 방황 속에서 나는 쿨하다는 포장아래 이 상황에 무릎 꿇어 버린다는 것이다. 덕훈이 무릎 꿇고 두 손 두발 다 들어버린 데에는 인아의 화려한 언변술이 한 몫 했을 것이다. 일부일처제의 모순점을 집어 내면서 자신을 합리화 시키는 인아의 모습은 덕훈에게는 그럴 싸 하게 보였으리라. 물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결혼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결혼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회에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 인디오들의 경우 결혼은 대체로 동족간 결혼과 일부일처제를 유지하였으나 추장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여러부인을 둘 수 있었다.

'아내가 결혼했다'

이유는 추장의 세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안되기 때문에 후계자를 많이 두어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옛날 일부다처제가 존재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쟁으로 인해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보다 현저하게 적었고 그 때문에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일부다처제의 결혼제도를 자연스레 선택했다. 그런데 인아가 두 명의 남자와 결혼이 하고 싶은 이유는? 그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닐까

일단 작가는 제목으로 하여금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성공한 듯하다. 왜인지 가벼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적어도 따분할 것 같은 생각은 안들었다. 일처다 부제라는 내용은 가부장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충분히 충격적이었고 고정관념이란 것에 얼마나 우리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저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뿐이다.

특히 작가가 축구를 소설내용에 결부시켜 표현한 부분은 축구에 대해 별 흥미가 없던 사람에게는 충분히 신선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 네모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축구게임이 바로 우리네 인생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w.스콧의 말, 「인생 그 자체가 축구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에 고개를 절로 끄덕였다. 한정된 시간 안에 벌어지는 많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은가?

책이 너무 가볍고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남는 게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말도 안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이 흥미로운지도 모른다. 다양한 독자들의 생각을 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타나토노트'에서 라울은 이런 말을 한다. '지루한 소설이나 어려운 소설, 자전적 소설을 쓰는 이유는 사상이 없고 상상력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할 수 없는 작가들은 결국 자기들의 세계를 묘사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발명은 없을 것 같은 21c에 아내가 결혼했다는 내용이 얼마나 참신할 수 밖에 없는가.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에 대해 문장 하나를 20행이나 되게 죽죽 늘어 놓는 고리타분한 작가보다는 말이다. 또 타나토노트에서 「호로메스의 '오디세이아'가 오늘날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면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야. 그 책은 아마환상 문학이나 공포 문학 속에 들어가 우리 같은 애들이나 읽어 주겠지」란 말이 나온다. 언젠가 이 책도 더 이상 소설 같은 내용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노릇이다.



청춘예찬

98학번 김종두 쌤배님

‘김종두 쌤배님이 후배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청 춘

-Samuel Ullman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미 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이십의 청년보다 육십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육십 세이든 십육 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젓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용기, 영원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이십 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팔십 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처음 이 글을 제의 받았을 때 내가 후배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나 나름의 성실함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했는가?” 돌아보았다.

나의 대학 생활을 전해 들으신 분들은 지금쯤 의아함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도 그러
한 것이 나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술 좋아하는 운동권 선배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더욱 그럴 것이다.

저 인간이 성실함을 이야기 하다니. 아마 이쯤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
다. (물론 여기까지 읽어주었다면.....)

내가 언급하는 성실함은 일반적인 개념의 성실함과 거리가 멀다.
그럼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실함을 한번 들여다보자.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들어간다.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마치 고3 학생이라도 된 듯 선생
님께서 불러주시는 모든 내용을 노트에 적어나간다. 이 내용이 올바른지 그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은 잘 못 된 것이니 고치자던지 새로운 대체 이론은 없는지?” 따위의 질문
은 애초 할 생각도 없다. 난 이 성실함을 이용해서 시험을 잘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강의가 끝나자 바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한 후 도서관으로 향한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토익 공부를 시작한다. 사실 지금 나에게 토익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꼭 그것을 공
부해야만 하는지 모른다. 다만 해야 할 듯 한 마음에 하고 있는 것이다.

주말에는 공무원 특강을 들으러 가야한다.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의 적성에 잘 맞
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대기업에 못 들어 갈 것이니, 이 직업이라도 가져야 사회
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실함이 아니다.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안타까운
현대인의 모습일 뿐.

내 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위의 시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읽어보라는 것이다. 스
스로 나는 청춘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사람이 있는가. 난 이미 늙어버린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 할 사람이 있는가. 아마도 단 한명의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청춘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대들에게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

그대들에게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을 뿌리치는 모험심이 있는가?

그대들에게 이성온 투명하되 얼음과 같은 이성과 날카로운 지혜가 있는가?

이제 고작 스무 해를 살아 놓고 이미 삶의 이상을 포기한 그들은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다.

내가 나의 청춘에 성실하게 부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라.

한 학기를 마치고

김혜원 부학생회장



한 학기를 마치고



벌써 6월, 여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21살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작년 11월, 추운겨울에 선거를 준비하던 때에서 8개월이나 지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긴 한가보다. 8개월 동안 무언가 많이 한 거 같으면서도 어영부영 넘어간 거 같다는 느낌이 한편으로는 든다. 작년 11월쯤에 부학생회장이 되기를 결심할 때는 내년에 있을 행사에 걱정만 한가득이었다.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을지, 내가 후배들을 받고, 선배들과 어울려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머리만 복잡했었다. 그렇게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스물네살 지식정보 학생회! New Image Everything Challenge(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것에 도전한다), 차준호 회장님, 김태우 부학생회장님과 함께 지식정보학부의 학생 대표가 되었다.

겨울방학이었던 1월과 2월은 학생회와 그리고 나에게 가장 바쁜 나날이었다. 3월 개강이 있기 전에 예비학교와 O.T, 새내기새로배움터(이하 새터)까지 새내기들을 맞이하는 행사가 이어져 있었다. 나는 새터의 우리 과 대표가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회의에 참가하며 새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우리 학생회도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앞으로 있을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모를 통해서 수시생들과 초기합격자들을 만나면서 07학번 새내기들을 알게 됐는데, 1년 동안 가장 어린 후배에서 이제는 후배가 생기는 입장이 되니까 설렘과 설렘함이 교차했던 건 왜였을까?

2월 21일, 예비학교를 위해 우리는 신입생들 한명 한명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새내기들은 처음 대학교 행사이다 보니, 떨렸을 것이고 나는 처음 새내기들과 행사를 가진다는 것에 설렘이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많은 새내기들이 와 주었고, 조금은 지루하고 미숙한 진행에도 1년의 시작이 좋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해줬던 행사였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말도 없어서 고생했지만, 그 다음 날 있던 O.T에서 만났을 때 반갑게 다시 인사하니 아, '애들이 나의 후배구나!!' 라고 실감할 수가 있었다.

2월 24~26일, 새터가 다가왔다. 새터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나의 잘못이었고 기간 내에서도 좋은 모습과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아침 8시에 집합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60명이 넘는 새내기들이 늦지 않고 와주었고 총 80명이 넘는 인원이 새터를 가게 되었다. 진행을 하느라 목이 다 쉬었지만, 즐거워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따라와 주는 동기들이 있어서 짧고도 긴 2박 3일은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주었다.



3월 개강. 2학년이 되어서 다니는 학교는 1학년 때와는 다른,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가지게 되었다. 개강 전에 있던 행사보다 앞으로 있을 행사들을 잘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던 기간이었다. 개강파티를 시작으로 학기 행사가 시작되었다. 많은 새내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강파티여서 그런지, 무언가 2%로 부족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4월 7,8일 연합 M.T 우리 학생회에서 하는 전반기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커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노력했다. 대규모의 인원을 모으고 진행하기란 정신이 없었지만 내가 무언가의 대표가 돼서 일을 진행하고 우리 학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중심으로 있다는 것은 짜릿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오랜만에 했던 운동회나 매년 갈수록 기발해지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각종 새내기 장기자랑은 엠티를 재밌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난 서울로 떠나는 날 재밌었다며 말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신나게 엠티도 다녀오니 중간고사가 날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 시험을 사람을 긴장시키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아쉽고 더 공부할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말이다.

5월 인대체전과 대동제. 5월의 날씨는 때로는 너무 덥기도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는 오락가락의 날씨가 반복되었다. 하지만 화창한 봄날 덕분에 각 단대별로는 체전을 진행하였고

우리 과도 역시 인대체전에 참가하여서 하나로 뭉치는 기회를 만들었다. 2박 3일 동안 진행 된 체전에서 선수를 뽑고 제 시간에 모이도록 하는 건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하지만 첫째 날, 우리 과의 성적은 아주 맑음이었다. 한 종목 빼고 모두 결승에 올라간 것이다.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인지 피곤하긴 했지만 우승의 목표로 기분이 좋았다. 그 다음 날 있던 결승전에서 발야구만 우승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했고 응원하면서 축구 결승전은 월드컵보다 더 골 맛은 짜릿했고 긴장감은 팽팽했고 응원전은 지정을 하나로 만드는데 충분했다. 2등으로 마무리를 지어서인가, 다들 너무 지쳐서 뒤풀이에서는 힘없이 집에 가거나 지쳐있던 것이 아쉬웠다.

대동제는 비가 와서 2박 3일 동안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새내기들은 비가 와서 주점진행에 허둥 됐고, 솜사탕, 다트게임, 동전던지기, 타로카드, 달고나, 폴라로이드 사진찍기 등 집부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는 주점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맘부터 앞서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초조했었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물러서지는 않는다. 천막으로 비를 막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다음 날 열심히 쳤던 천막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바람, 자연의 힘이던가! 망연자실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천막을 새웠다.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고 우리는 적당한 음주로 축제를 즐겼다.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축제에 참여한 이들에겐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진행 된 1학기. 그리고 벌써 6월이다.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고, 시험이 끝나면 2달이라는 긴 방학을 맞이한다. 새내기들은 처음 생활하는 대학에 적응했을 것이고, 2,3,4학년은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부학생회장으로 1학기를 보내면서 나에게 많은 경험과 추억을 얻을 수 있었다.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은 모습에 울기도 많이 울고 짜증도 많이 냈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동기들과 선배, 후배들 덕분에 무사히 한 학기 동안 힘을 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마무리하는 마음가짐으로 행사를 진행해야겠다.

'기억은 있는데, 추억이 없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스물네살 학생회가 지식정보학부 학생들에게 기억이 아닌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학생회로 2학기를 잘 마무리 하고 싶다.

맛집 탐방

-대학로의 맛 집을 찾아 가다



우리는 가난한 대학생. 학교주변의 놀 곳이라곤 대학로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대학로의 음식들은 모두 다 비싸기만 하다. 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어디 싸고 맛있는 곳 없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로 주변의 숨겨진 맛집을 찾아 나섰다. 우리가 맛집을 찾은 기준은 싸고 맛있는 곳. 대학로를 뒤지고 뒤진 끝에 찾은 맛집들을 몇 곳 소개한다.

대학로 분식집중 제일 싸다! 돌리네 분식



가난한 대학생들이 즐기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 많은 곳이 역시 대학로이다. 딱히 밥이라고 먹을 곳이 많지 않은 대학로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맛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다. 찾기도 쉽게 베스킨라빈스와 하겐다즈 골목 사이로 쪽 올라가 다보면 위치해있고, 모든 메뉴가 2000~2500원! 아주머니도 정말 친절하셔서 양이 많은 사람은 미리 밥을 많이 달라고 하면 밥을 더 없어 주시기도 하는 곳이다. 이 곳에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양푼비빔밥과 제육덮밥. 비빔밥은 양이 많은데도 2000원밖에 하지 않고, 제육덮밥도 2500원이다.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돌리네 분식만한 곳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방송도 탔다! 마미하우스



안에는 이미 사람들도 몇 명 있어보였다.

이 곳의 청국장장은 특유의 냄새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는다. 또한 밥을 따로 양푼에 비벼먹게 되어있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양은그릇에 여러 가지 나물과 함께 청국장을 넣고 비벼먹는 맛이 아주 일품이다. 김치와 다른 밑반찬들도 손색이 없다.

청국장 말고도 해장국, 감자탕, 순두부찌개 등이 메뉴에 있는데 모두들 가격은 5000원 안팎. 다른 것은 다 맛있으나 순두부찌개는 개인적으로 비추.

대학로에서 가볍게 연극 하나를 보고 청국장을 먹으로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듯 하다.

20년 전통으로 승부한다! 골목집



곱창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순대곱창, 소곱창 모두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다. 20년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언제나 같은 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긴 세월만큼 낡고 허름한 곳이어서 마음 편히 술을 마시고 떠들 수 있는 곳이다. 골목집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골목집에서는 소곱창을 먹고 나와야 제대로 먹고 나오는 것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소곱창 구이이다. 또한 곱창 전골등도 사랑받는 메뉴로서 야채에서 우려나온 향과 국물이 곱창에 스며들어 감칠맛을 더한다.

간판이 골목앞에 딱하니 있지만, 화려한 건물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뛰어서 맛만큼 전라도 이모님의 인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순대곱창 6000원 소곱창 10000원

4번 출구에서 나와 성대쪽 큰 길로 가다가, 춘천닭갈비 맞은편에 분식집 두 곳을 지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감자탕 퍼먹어~ 개미식당



깔끔과는 거리가 멀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식당으로, 순대국과 감자탕 전문집이다. 15년 동안 순대국밥과 해장국만으로 유지해 왔으며, 항상 한결같은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달래주고 있다.

진한 국물맛과 많은 양으로 이 곳 감자탕은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하며, 그만큼 단골손님들도 많다. 단순한 한 끼 해결에는 백반이나

해장국,순대국이면OK!해화역 4번 출구 앞 대학로 베스킨라빈스에서 성대방향으로 쪽 올라오다 보면 보인다.

서양식 돈까스가 생각날뎀? 왕돈까스

대학로에는 수많은 돈까스 집이 위치하지만, 이곳은 그 중에서도 가격이 제일 싼 뿐만 아니라 맛도 절대 뒤지지 않는 곳이다. 간판도 없고, 내부도 그리 깔끔한 곳은 아니지만, 아주머니의 친절과 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돈까스도 맛있지만, 밑반찬으로 나오는 깍두기의 맛도 일품이며, 후식으로 주시는 요구르트 또한 이 왕돈까스집의 매력이 다. 요즘 일본식 돈까스가 판치는 때에 옛날에 먹던 토마토 소스의 서양식 돈까스가 그리다면 꼭 가봐야 할 곳이다. 왕돈까스 2900원.

해화역 4번출구로 나와 성대 쪽으로 직진 후, 아트박스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보인다.



취재 & 기사: 새내기 기자단 07 이다나

*정답을 가지고 오시는 1분께 상품증정

쉬어가기

		7		3		4		
	4		2			6		7
		3			4		8	
1					3	9		
			4		5			
		8	1					5
	6		3			1		
8		2			1		6	
		9		8		7		

Daily SuDoku: Sun 3-Jun-2007

very hard

머리를 식혀볼까?! 굴려볼까?!

머리 꼬이는 '간단한' 퍼즐 스도쿠

머리 꼬이는 '간단한' 퍼즐 - 스도쿠 [數獨, sudoku]

과제에 찢어서 돌지도 않는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어젯밤 먹은 소주 때문에 아직도 숙취가 풀리지 않아 머리가 땡한가? 그런 당신을 위해 골 때리는 간단한 퍼즐 "스도쿠"를 준비했다. 스도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스도쿠란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 또는 '한 자릿수'라는 뜻이다. 18세기의 스위스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Leonhard Euler)가 고안한 '마술 사각형' 게임에서 유래되었다. 1984년에 일본의 퍼즐회사 니코리에서 스도쿠라는 명칭으로 판매하여 크게 인기를 얻었고 그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게임 규칙이 단순하지만 머리를 많이 써야하는 "지능형" 퍼즐이다.

"지능형" 퍼즐이란. 우리에게 언제나 "지능형"은 어렵다. 하지만 우리 지식정보학부의 전체적인 지적 수준을 가늠해 본다면 스도쿠 두 문제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확신은 서지 않지만).

자자 그럼, 일본에서 개발되어 전세계의 골치를 썩이고 있는 스도쿠의 세계에 푸~욱 빠져보자. 정답을 편집부로 가져오시는 분들께 김유리 선배의 프리허그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필자에게 생주 하나만 사주면 비밀리에 사바사바 할 수도 있다.ㅎㅎㅎ)

※게임 방법: 가로와 세로 9칸씩 모두 81칸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각각 **1에서 9까지 숫자를 한 번씩만 써서 채우는 것**이다. 또, 큰 정사각형은 가로·세로 각 3칸으로 모두 9칸인 작은 사각형 9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9칸짜리 작은 사각형 안에서 1에서 9까지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한다. 가로와 세로 줄의 수를 줄이거나 늘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

편집 후기

첫 번째 그림비를 발행하고 난 후..



편집부장 06 김유리- 드디어 첫 번째 그림비가 발행 되었어요!!! 이번에 새롭게 생긴 부의 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우리 차장님과 새로 들어온 새내기 기자단 후배들이 너무 나도 자기의 몫을 잘해주어 그림비 작업이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거 같아요. 특히 표지디자인부터 그림비 구성까지 여러방면으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우리 회장님! **차준호 선배님** 정말 고맙고, 바쁘데도 만사 제쳐두고 정확한 날짜까지 맞추어서 기사도 써주고 표지모델 해 준 부짱 혜원이, 컨셉사진도 찍어주고 기사에 들어갈 사진 제공해주신 창호 고마운 말 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수고 많았던 차장 경선이와 예쁜 우리 편집부 새내기 기자단들 정말 고맙다. Vitamin 편집부 화이팅!

편집부차장 06 장경선: 선전부 부원으로 활동하던 1학년때의 그림비와 편집부 차장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만든 그림비. 이번의 그림비 제작은 작년보다 심적으로 부담이 컸다. 1학년 새내기 기자단을 이끌고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서였을 것이다. 유리 부장님의 고생과 새내기 기자단들의 수고, 학생회 여러분들의 격려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그림비. 우리 새내기 기자단과 지식정보 여러분의 각기 다른 색으로 하나하나 정성들여 구성된 기사들이니 만큼 많은 관심가지고 그림비 사랑해 주길 바란다. 우리 부장님 유리, 이쁘고 대견한 새내기 기자단, 술선수범해주신 회장님, 부짱 혜원이,그리고 그림비 제작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모두모두 고마워요^^

07 김남식- 소모임 인터뷰에 응해주신 태진이, 태우선배 고맙웠구요, 처음 써보는 기사 인지라 많이 부족할텐데 넓은 아량으로 읽어주시구요, 볼 건 없지만 싸이월드 /0714005 애용해주세요.ㅋㅋㅋ 유리선배, 경선선배 편집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07 박동준 - 아 제가 태어나서 기사라는 것을 처음 쓰게 되었는데요 어찌보면 낯설고 힘들었지만 사람들을 취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고요. 시간대가 안맞다 보니 취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지만 즐거운 일인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에게 감사에 말씀 전하고요 편집부 파이팅!!!!

07 박승호 - 항상 글을 쓰는 데에는 부담감과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혹시나 오타가 있진 않을까 문장구성이 잘못되진 않았을까하는 걱정을 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나의 글을 읽고 1년 전, 혹은 몇 년 전의 자신의 1학년 때를 떠올리고 살짝 웃고 공감할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07 윤예림 - 편집부 일원으로서 그림비에 동참했다는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기자로 활동하고 기사를 쓴다는 색다른 경험을 해서 너무 즐거웠구요. 항상 고생 많으신 부장 유리선배님과 차장 경선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인터뷰할 때 큰! 힘이 되어준 남식이 고맙다^^.

07 이다나 처음으로 만들어본 그림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시작한 것 같은데 기사하 나를 쓰고 나니 금방이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나름 만족한다. 예쁘게 나온 그림비를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ㅋㅋㅋ 맛집 탐방할 때 우리에게 맛있는 왕돈까스를 사준 남식이에게 감사하면서 그림비가 즐겁게 사람들에게 읽혀지길 바란다.

07 장한별 우리가 쓴 기사가 그림비로 나온다는게 아직까지 실감이 안나네요. 고생 많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과대분들께 너무 감사하구요, 처음 작업한 그림비인지라 부족한점 많아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기사를 맡은 지환이 정말 고마웠고 수고했어! 그리고 편집부 경선선배님, 유리선배님, 동준, 다나, 기쁨, 인영, 경훈, 현지, 승호, 남식, 지영, 모두모두 수고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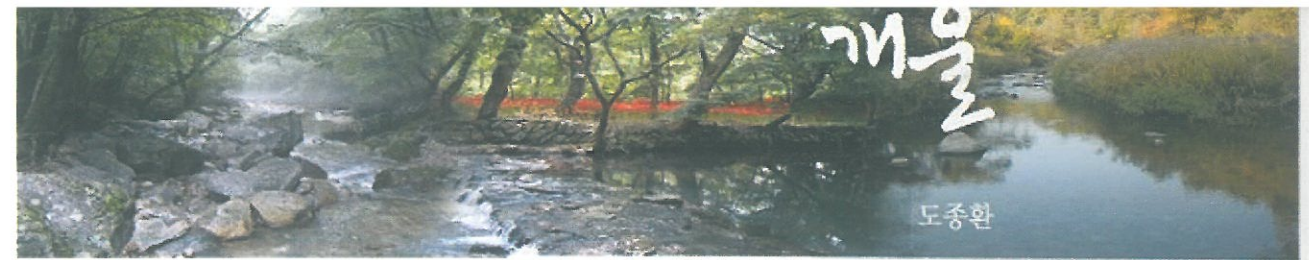
07 정경훈 - 스도쿠 정답을 맞추신 분은 유리 선배에게로 (정말) 찾아가시면 소정의 주먹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답 확인은 010..... 그림비 편집, 별로 한건 없지만 이름이 들어가니까 재밌네요ㅎㅎ

07 정지환 처음으로 기사를 쓰게 돼서 생각 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부족한 점이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인터뷰는 과대 인터뷰였는데 인터뷰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고, 마지막으로 여러 과대분들의 정보를 준 용훈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07 허기쁨 처음 맡은 기사가 그냥 기사가 아니라 인터뷰 기사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하나 조금 걱정도 했었지만 교수님도 편안히 해주시고 하셔서 무사히 글을 쓸 수 있었다. 처음 쓰는것이라 그런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07 허지영-말로만 듣던 그림비에 내가 직접 참여하다니... 정말 기분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부담도 됐었지만, 이렇게 끝마치고 나니 뭔가 해낸 것 같은 기분예요~ 정말 흥분하고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그림비 재밌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ㅋㅋ p.s 맛집기사에 도움을 준 남식아, 고맙다!... 됐지? ^^

07 황인영- 이번 그림비 만들기를 통해서 편집부의 소속감도 확실하게 느꼈고, 또 자부심도 느꼈다. 편집부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따로 있었지만, 편집부 부원들과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다보니 편집부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 작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 재미있었다. 부장님과 차장님 그리고 07동기들. 다른 부서에 비해 소수인원이지만 협동은 최고입니다. 모두 그림비 만드느라 수고했고 앞으로도 신나는 대학생활 하자^^



도종환

개울은 제가 그제 개울인줄 안다
산골짜에서 이름없는 돌맹이나 매만지며
밤에는 별을 안아 흐르고 낮에는 구름을 풀어
색깔을 내며 이렇게 소리없이
낮은 곳을 지키다 가는 물줄기인 줄 안다
물론 그렇게 겸손해서 개울은 미덥다
개울은 제가 바다의 뿔뿔임을 모른다
바다의 시작이요 뱃박임을 모른다
아무도 눈여겨보아주지 않는
소읍의 변두리를 흐린 낮빛으로 지나가거나
어떤 때는 살아 있음을 의미조차 잊은 채
떠밀려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줄로 안다
쏘가리나 피라미를 키우는 산골짜 물인지 안다.
그러나 가슴속 그 물빛으로 마침내
수천수만 바닷고기를 자라게 하고
어선만한 고래도 살게 하는 것이다
언젠가 개울은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곧 바다의 출발이며 완성이었음을
멈추지 않고 흐른다면
그토록 꿈꾸던 바다에게 이미 닿아 있다는 걸
살아 움직이며 쉽없이 흐른다면

대학생활의 로망!! 2007 여름 농활!!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7박8일간(예정)
충북 진천으로 여름농활을 갑니다!! 대학생으로서 꼭 한번 경험
해봐야할 농활!! 우리 모두 같이 가요~!!^~^*

기간:6월25일~7월2일
장소:충청북도 진천군
참가비:5000원(예정)
참가신청:농활대장 김혜원
016-520-5114



2007년 여름 자주지정 학생회

확대간부수련회 같이 가요!!^~^*



대상:우리와 학우 누구
나 참여할 수 있어
요^^
날짜:7월13일~14일
참가신청:
부학생회장 김태우
016-395-0777

*본 행사에 학생회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발행일: 2007년 6월 13일
발행처: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발행인: 06 김유리

그림비 발행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지식정보학부 학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림비는 '청년'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지식정보학부 학생회
VITAMIN 편집부

편집부장-06김유리

편집차장-06장경선

새내기 기자단

07김남식 07박동준

07박승호 07윤예림

07이다나 07장한별

07정경훈 07정지환

07허기쁨 07허지영

07황인영 07최현지